'다비치' 이해리 "강민경 주둥이 뻥끗 못하게 됐다"…왜?

등록 2022.04.29 09:24:27

[서울=뉴시스] 이해리 2021.04.29(사진=이해리 인스타그램) photo@newsis.com
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듀오 '다비치' 이해리가 근황을 전했다.

이해리는 28일 인스타그램에 "오늘 인바디 검사했어요. 드디어 저의 십년 묵은 체증이 씻고 내려갑니다"라며 키 161.4㎝, 체중 47.0㎏이 적힌 검사 결과 사진을 올렸다.

이어 "여러분 문방구에서 파는 줄자로 절대 키 재지 마세요"라며 "강민경 주둥이 뻥끗도 못하게 됐어요"라고 덧붙였다. 이에 강민경은 "기계 고장이라던데"라고 댓글을 달았다. 앞서 강민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해리의 키가 159.5㎝라고 했다.

다비치는 지난 1월 앨범 '소녀 같은 맘을 가진 그댈 생각하면 아파요'를 발표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